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능성과 과제
 - 교육 과정,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을 중심으로 -

이선경¹ · 주형선^{1,*} · 김남수² · 김찬국³ · 장미정⁴ · 권혜선³

¹청주교육대학교 · ²대림중학교 · ³서울대학교 · ⁴환경교육센터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Universities

- Focused on Curriculum, Partnership, and Sustainable University Management -

Sun-Kyung Lee¹ · HyungSon Ju^{1,*} · Nam-soo Kim² · Chankook Kim³ ·
 Meejeong Jang⁴ · Hye-Seon Kwon³

¹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²Daerim Middle School ·
³Seoul National University · ⁴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urrent status of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universities since UN DESD was launched in 2005,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in them.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nd case studies on members of university communities which were engaged in green campus activities or interested in SD and ESD.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showed that most of those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 were well aware of SD, but had comparatively low understanding of ESD.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since 2005 they had newly opened courses on SD or ESD, or added contents on SD or ESD to existing ones. Ratio of network participation among ESD-related universities was over 30%, and they appeared to have the highest partnership ratio with NGOs. Not many universities had policies for sustainable school management, and 'green space conservation and ecosystem protection' and 'energy and resource saving campaign and monitoring' were most common sustainable environment protection activities. Through case studies on eight universities, it was discovered that ESD programs in universities took various forms such as whole-university approaches, participatory courses and club activities. We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make efforts to find out good examples of ESD in Korean universities and share the results with university leaders, professors and staffs for further development of ESD.

Key word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 Korean university, present status, questionnaire survey, case study

* 이 연구는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ecopia21_@hanmail.net, Tel : +82-43-299-0750, Fax : +82-43-299-0758

I. 서론

대학(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은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고유의 역할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의 주체이자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2005). 대학에서의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 성과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공간 및 에너지,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책 수단을 통해 자원 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지구의 안녕과 기관의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많은 졸업생들이 기업과 정부, 사회 등 생활과 직업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Chalkley, 2006).

우리나라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는 녹색캠퍼스 또는 그린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다. 개별 대학에서 관심을 가진 교수들을 중심으로 ‘녹색캠퍼스 운동’을 수행한 과정을 소개하거나(녹색캠퍼스 운영위원회, 2004)나 ‘그린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의 환경경영, 친환경캠퍼스 구축, 에너지·자원 관리, 교육과 연구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소개한 경우(신의순 등, 2009;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2009) 등이 그 예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대학들의 실천 사례집(녹색연합, 2009)을 펴내거나 그린캠퍼스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대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 국제포럼을 개최한 경우(경기도그린캠퍼

스협의회, 2010)도 있다. 그러나 캠퍼스의 녹색화와 에너지 절감형 시설 구축 대신 교육 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지속가능발전을 다룬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조사한 연구(남영숙 등, 2010; 지승현 등, 2010)가 일부 수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습은 교육(education)이라는 대학의 본연의 영역에서 잘 드러날 수 있으며, 보다 넓게는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경험하는 학습(learning)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의미 있는 학습(learning)은 강의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교수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직원과 외부의 협력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학습이란 이들이 경험하고 배운 바를 포괄한다(UNESCO, 2009b).

본 연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평가(evaluation)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선경 등, 2010)의 일환으로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라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된 대학이나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에서의 현황 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은 교육

1)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그 초점에 따라 다음 세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 1 단계: DESD의 맥락과 구조(2009), 2단계: DESD와 관련된 과정과 학습(2011), 3단계: DESD 영향과 결과(2015)(UNESCO, 2009b). 우리나라의 경우 1단계는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설문지에 관련자들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선경 등(2010)의 연구는 2단계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DESD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단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정과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활동,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과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학습의 주체를 대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학교 설비 담당 직원, 외부 협력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로 보고, 이들이 배운 바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함께 수행하였다.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대학의 교육 과정과 연구 활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2. 연구 대상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현황은 어떠한가? 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상을 볼 수 있는가?
3. 연구 대상 대학의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과 환경 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나타나는가?

II.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대학은 변화의 대상이라기보다 변화의 주체이어야 한다.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지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1990년 22개 대학 총장들이 프랑스의 Talloires에 모여 대학 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양을 위한 탈루아르 선언을 하였고, 이후 할리팩스 선언(1991), 교토선언(1993), 스완지선언(1994), 코페르니쿠스선언(1997), 뤼네부르크선언(2000)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지도자협회(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Leaders for a Sustainable Future: ULSF)는 대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관리, 계획, 개발, 교육, 연구, 운영, 봉사, 구매, 교통, 설계, 건축, 개선(renovation), 개량(retrofit)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야 하며, 특히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발전 개념을 적용하는 학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ULSF, 1999).

지속가능발전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국가나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tephens *et al.*, 2008). 먼저,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며,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영과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대학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능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장소이며, 대학은 그 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연구를 통해 찾아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생각을 교환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대학 내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 대학과 사회 간의 상호 학습의 과정을 촉진시킨다.

대학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새로운 학과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부터 기존의 교육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소재를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avan 등(2002)은 Sustainable Toronto Project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학 교육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10가지로 유형화하였다. Kim 등(2005)은 이들의 범주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반영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대학 교육 과정 20여개를 각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대학 교육 과정 중 다수는 대학 캠퍼스의 친환경적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방식 6) 그 외에도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대학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식 1: 지속가능성 관련 새로운 학위과정 개설

방식 2: 지속가능성 관련 부전공이나 자격증 과정 개설

- 방식 3: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강좌 개설
- 방식 4: 기존의 강좌에 새로운 교재나 교육 내용 반영
- 방식 5: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대학 교육 과정 전반에 반영
- 방식 6: 잠재적 교육 과정(hidden curriculum)

최근 영국에서 조사한 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역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대학 교육 과정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영국(England)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접근으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업 모듈을 개발하고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대학 운영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 전체적 접근(whole-university approach) 또한 소개된다. 대학 내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센터 설립하기, 관심 있는 대학들 간의 연합체 만들기, 대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나 시상 등도 주요한 흐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학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가르치거나 연구자를 기르는 데 한정하지 않고 대학 경영과 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의미 있는 학습(learning)의 주체가 대학 강의를 듣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를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직원과 외부의 협력자 등의 여러 이해당사자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learning)의 개념 역시 이들이 경험하고 배운 바를 포괄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과정(process)과 학습(learn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지속

가능발전교육 10년 중간 평가·모니터링 2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UNESCO, 2009b).

III. 연구 방법 및 과정

1. 설문 조사

가. 연구 대상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²⁾ 및 경기그린캠퍼스협의회³⁾ 소속 대학의 관련 업무 담당자(기획실장, 시설과 담당자 등) 및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교원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45개 대학의 교직원 65명이 최종 설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설문 대상을 대학 당 1명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그린캠퍼스 담당자 이외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이들의 의견이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조사 방법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메일로 설문지의 인터넷 주소와 연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메일 발송 후 설문 대상들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설문지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 미참여자에게 두 차례 추가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9개 대학, 19명의 교직원과 연구원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환경정책위원회가 개발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표(UNECE, 2006)(표 1)와 영국 지속

2) 개별 대학에서 벌이고 있는 그린캠퍼스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시책이 결합하여 2008년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가 만들어졌다(<http://www.kagci.org>).

3) 대학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등의 목적으로 2010년 경기그린캠퍼스협의회가 창립되었다(<http://greencall.gg.go.kr/sub8/campus.php>).

표 1. UNECE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펴낸 지표 보고 형식

<형식>	
목표 - 지표 1 - 하위지표 1, 하위지표 2... - 지표 2 - 하위지표 1, 하위지표 2...	
<예시>	
목표 형식, 무형식, 비형식교육에서 SD가 증진되고 있다. 지표 2.3 ESD/SD에 대한 전체 기관 접근이 장려된다.	
하위지표 2.3.1	고등교육기관들은 ESD/SD에 대한 “전체기관 접근”을 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Phage II : 무형식, 비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ISCED에 따른 교육체계의 모든 수준에 대해 상술하고, 아래 표에 표시하시오(표 생략). ·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역시 상술하시오.
하위지표 2.3.2	SD/ESD에 대한 전체기관 접근을 지원하는 유인책(가이드라인, 포상체계, 자금지원, 기술적 지원 등)이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Phage II : 무형식, 비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ISCED에 따른 교육체계의 모든 수준에 대해 상술하고, 아래 표에 표시하시오(표 생략). ·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역시 상술하시오.
하위지표 2.3.3	이들 기관/단체를 위해 그 기관에 해당하는 SD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자(learners)가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Phage II : 무형식, 비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ISCED에 따른 교육체계의 모든 수준에 대해 상술하고, 아래 표에 표시하시오(표 생략). ·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역시 상술하시오.

가능발전교육 조사 보고서(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고서(2006) 등에서 고등교육 영역을 참고하였다.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설문지는 크게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대상자의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설문 대상이 재직 중인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연구 현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참여 현황,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의

범위가 그것이다(표 2).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뺀 나머지 문항에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설문조사가 담지 못하는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에 따라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2. 사례 조사

가. 선정 준거

먼저 후보 사례의 적정성을 검토할 선정 준

표 2.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조사 설문내용

범주	내용
인식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교육 과정과 연구활동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한 사례,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는 프로그램/활동 존재 여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활동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국내·외 대학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참여 현황
지속가능한 학교경영과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현황

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젝트 인정 기준(German Commission for UNESCO, 2010), 국내 ESD 인증제 기준(안)(이재영 등, 2010),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모니터링과 평가 중간 보고서(UNESCO, 2009b), ENSI의 ESD 학교를 위한 질적 기준(Breiting, Mayer & Mogensen, 2005),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을 위한 실행틀(UNESCO, 2005) 등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개발되었다. 그 결과, 내용의 통합성, 인식 증진, 역량 강화, 실행 및 참여, 성과와 효과,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등이 선정 준거로 정해졌는데, 이와 같은 준거는 본 연구에서 새로 설정했다기보다는 기존 여러 문헌과 기준에서 강조되고 있던 준거를 종합하여 보다 명료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3). 후보 사례는 선정 준거 가운데 2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례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선정된 사례는 4~6가지의 준거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나. 조사 방법

선정 준거에 따라 사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과 신문,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

였고, 또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적당한 후보 사례가 나타나지도 살펴보았다.

이때,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여(이재영 등, 2010)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program), 프로젝트(project), 행사(event), 활동(activity), 사업(initiative), 자원(resource)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그린캠퍼스협의회에서 펴낸 ‘그린캠퍼스 확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2009)’, 녹색연합이 펴낸 ‘저탄소 녹색캠퍼스(2009)’ 그리고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가 주최한 국제포럼 자료집(2010) 등에 소개된 국내 대학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조사하였다. 후보 사례들은 ‘대학-전체적 접근’의 예로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학생 참여’의 예로 한양대학교의 ‘Saving HYU를 꿈꾼다’ 캠페인, 숙명여자대학교의 ‘캠퍼스 왓치’, 경상대학교와 통영 RCE(Regional Center of Expertise for ESD,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센터)와의 협력에 기반한 환경동아리 ‘에코캠퍼스’ 등이었다. 또한 관련

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선정 기준

준거	세부 내용	준거가 포함된 예*
내용의 통합성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을 두 가지 이상 함께 다루고 있을 것	a, b
인식 증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지향하고 있을 것(또는 인식 확산에 기여한 증거가 있을 것)	a, b, c, e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비판적 사고, 분석적 질문 기능, 미래에 대한 비전, 시스템적 사고, 전통과 혁신 조화, 문제해결력 증진 등)	c, d, e
실행 및 참여	집단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구체적 실행 및 이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고 있을 것	c, d, e
성과와 효과	집단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	a, b, c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최소한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를 연결할 것(연계, 파트너십, 네트워크등)	a, b, c, d, e

* a. 독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정 기준, b. 국내 ESD 인증제 기준(안), c.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모니터링과 평가 중간 보고서, d. ENSI(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의 ESD 학교를 위한 질적 기준 e.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실행 틀

‘강의’의 예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청주교육대학교의 ‘생물학 및 실험’, 공주대학교 ‘환경교육 프로젝트 접근법’ 등을 선정하였고,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예로 청주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시행 초기라 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사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단일 강의로부터 학교 전체적 접근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설문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례를 반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는 좀 더 특징적인 활동을 사례조사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표 4). 선정 과정과 선정된 사례의 의미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연구진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각 사례를 개요, 과정과 학습, 의미 및 시사점 등의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이나 이메일을 통한 면담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관련된 사례 조사 내용 중 일부를 취하여 이를 기술하거나 각 사례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주는 의미 및 시사점을 논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설문 참여 대상의 특징

설문 참여대상의 특성은 대학 재직 연수와 직위, 성별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대학 교수가 대부분이었으며, 한 대학에서만 교직원인 응답하였다. 재직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이 31.6%, 5년 미만인 26.3%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였다(84.2%). 본 설문의 참여자는 해당 대학에 10년 이상 재직 한 남자 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 참여자 가운데 응답자 1인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94.7%), 본 설문 참여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 Plymouth 대학의 강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난다(Cottons *et al.*, 2007). Cottons 등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낮았지만(5%)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만족할 정도이다 등의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린캠퍼스 활동의 책임자이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57.9%), 용어만 들어보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21%를 차지했다.

3. 교육 과정과 연구 활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설문 참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200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강의를 새로 개설한 사례가 있는지, 기존 강의에 이들 내용을 포함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학원 과정이 있는지 또,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는 프로그램/활동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73.7%가 200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강의를 새로 개설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새로 개설된 수업 가운데 학부 교양과목으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 ‘환경과 조화로운 삶’, ‘현대 환경문제의 이해’ 등이 있었다.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사례에는 ‘환경교육 프로젝트 접근법’,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녹색성장교육론’, ‘친환경건축디자인’, ‘환경경영’, ‘지속가

표 4.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례

사례	개요	선정준거
국민대학교 '녹색캠퍼스 함께하기'	대학신문의 녹색캠퍼스 만들기 운동과 교양수업, 학교 정책 세 측면에서 녹색캠퍼스를 추진함	· 인식 증진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서울대학교 'Sustainable SNU'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	· 인식 증진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청주교육대학교 '지속가능 발전교육네트워크' 활동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가입, 국제세미나 개최, 내부 학습모임 운영	· 인식 증진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공주대학교 수업 '환경교육 프로젝트 접근법'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수업	· 내용의 통합성 · 인식 증진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건국대학교 수업 '환경과 NGO'	NGO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 답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여러 섹터들의 역할 알아보는 수업	· 내용의 통합성 · 인식 증진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한양대학교 신문 캠페인 'Saving HYU를 꿈꾼다'	대학신문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학내 관심을 불러오고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침	· 인식 증진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경상대학교 동아리 '에코캠퍼스 Eco-campus'	'인평동 빈그릇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고등학교 환경동아리와의 연계 활동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울주군과 부산대학교의 파트너십	울주군과 부산대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평생 학습 도시를 만들어감	· 인식 증진 · 역량 강화 · 실행 및 참여 · 성과와 효과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능한 지역만들기' 등이 있었다. 교과목의 이름을 통해 살펴보면 이들 교과는 교육학, 경영학, 건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기존 강의에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역시 68.8%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지리학', '환경과 NGO', '산업폐수공학', '경영학

원론’, ‘생물학 및 실험’, ‘환경교육 과정 및 교재론’ 등이 그 사례로 제시되었다.

교육 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대학 교원 같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공 관련 학회에서의 논의, 사회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캠퍼스 환경 변화에 비해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SQW Limited, 2006). 대학 당국이 일괄적으로 교육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할 때는 반발이 생기기도 한다(전영승, 2009). 그러나 설문 참여자들처럼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의 경우 관련 강의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강의에 내용을 추가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례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과의 학문적 영역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에 개설된 ‘환경과 NGO’ 수업은 2010년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NGO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더불어 수강생들이 기부 활동을 조직하여 NGO를 직접 지원하는 활동,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을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지니즈’라는 관점에서 탐방하는 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NGO와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또, 성미산 마을을 탐방한 후 쓴 2010년 학생보고서에 따르면 한 수강생은 도시 속에서 공동체를 일구고 대안적인 경제 활동을 꾸려가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이 개설된 환경과학과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다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강생들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과 NGO 담당 교수와의 전화 면담(2010.11.24 수행)에서 강조

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초점을 맞춘 사례는 없었다.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대학원 수업의 예로 교육학과 대학원에 개설된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건축학과와 친환경 건축디자인에 대한 이론 및 설계 수업, 공무원 및 기업체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 과정 등이 있었다. 유네스코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전반기 동안 이행된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계 각 지역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초점을 둔 이학석사와 박사과정이 개설된 국가가 있다(UNESCO, 2009a). 하지만 이 결과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학위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학습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만을 포함시킨 국가와 환경교육 석박사 학위를 여기에 포함시킨 경우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응답자의 42.1%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활동이 개설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설된 경우에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그 뒤를 따랐다(표 6).

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학원 과정

	ESD를 핵심적으로 다룸	ESD를 부분적으로 다룸	ESD를 다루지 않음	빈도
석사 과정	0	9	8	17
박사 과정	0	7	6	13
기타				6
계				17
무응답				2

표 6.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활동

항목	빈도	비율(%) [*]
교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15.8
학생 동아리 활동	6	31.6
학생 모니터링 활동	2	10.5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3	15.8
기타	4	21.1
해당 사항 없음	8	42.1

^{*} 복수 응답이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음.

학생 동아리 활동은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논의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사례 조사로 살펴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동아리 ‘에코캠퍼스(Eco-campus)’는 캠퍼스 내에서 진행해 오던 ‘쓰레기 없는 축제’, ‘빈그릇 운동’을 학교가 위치한 통영시 인평동으로 확장하여 ‘인평동 식당 빈그릇 운동’을 수행하여 음식점 주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한산신문, 2009. 05.08). 또, 2010년에는 ‘통영여고 및 통영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과의 연계활동’을 진행하여, 지역 고등학교 환경동아리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키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만드는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에코캠퍼스, 2010). 에코캠퍼스의 이러한 노력은 경상대학교가 통영 RCE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로서 협력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응답자 가운데 26.3%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연구 활동 가운데에서는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수행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세미나, 워크샵, 학술 행사 그리고 대학 내 관련 연구소 설치가 그 다음 순이었다(표 7). 영국 대학에서 지속가능

표 7.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활동

항목	빈도	비율(%) [*]
연구 프로젝트 수행	12	63.2
세미나, 워크샵, 학술회의 개최	8	42.1
학교 내 관련 연구소 운영	7	36.8
기타	3	15.8
해당 사항 없음	5	26.3

^{*} 복수 응답이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음.

발전교육 관련 연구 현황(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을 보면, 정부 지원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가 개설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재학생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조사한 사례도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재정 지원 없이 대학 단위에서 수행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4.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활동 현황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국내·외 대학들 간의 네트워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30%가 넘었다. 다른 섹터들과의 파트너십은 NGO와 협력관계를 맺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학들 간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정부, 학교, 기업, NGO 등과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26.3%에 달했다(표 8).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와 경기그린캠퍼스협의회와 같은 국내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이외에

표 8.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항목	빈도	비율(%) [*]
국내 대학들과의 네트워크에 참여	6	31.6
국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에 참여	7	36.8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9	47.4
초중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	7	36.8
기업과의 파트너십	4	21.1
NGO와의 파트너십	11	57.9
기타	0	0.0
해당 사항 없음	5	26.3

^{*} 복수 응답이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음.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독일 베를린대와 중국 칭화대, 일본 동경대, 싱가포르 대학 등 외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유네스코 석좌교수가 중심이 되는 교사 교육기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NGO와의 파트너십은 (사)생명의숲, 환경정의, 서울그린트러스트, 녹색연합처럼 서울에 위치한 큰 규모의 환경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많았다. 삼성테스코와 풀무원과 같은 기업 및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교육 과정을 개발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와의 협력 사례로는 대학 부설 식물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초등학생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이 지역 환경단체 활동에 자문을 하거나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또한 경상대학교의 경우처럼 유엔대학에 의해 8번째 RCE로 지정된 통영 RCE와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하게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조사로 살펴본 울주군과 부산대학교의 파트너십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만나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평생 학습 도시라는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간 경우이다. 지자체가 비전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2007~2009년 사이 발행된 울주군 백서를 보면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평생교육 및 지속가능교육에 대한 연수와 강연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의 경우를 보면 ‘학습의 즐거움 및 타 도시 학습동아리 우수 사례’와 ‘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평생교육’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울주군, 2010).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행한 이들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의 평생교육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지역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습 기회가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대학교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울주군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12월 8일 이루어진 부산대학교 담당자와의 전화면담(2010.12.08)에서 강조된다. 또한 같은 날 이루어진 울주군 평생학습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 내용(2010.12.08)에 의하면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산대학교가 울주군에 위치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할 통로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 점 역시 울주군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 다른 섹터들과 협력 사업을 벌일 때 파트너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지속가능한 학교경영과 환경관리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을 위한 정책이 공식 문서로 명시화되거나, 전문 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 예산이 책정된 비율은 각각 20% 정도로 높지 않았다. 환경경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 방침이 명문화된 사례에는 ‘대학 녹색 캠퍼스 운영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선언’ 등이 있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사례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경우가 보고되었다. 학교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된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대학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정책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는 답변도 있었다.

사례 조사로 살펴본 서울대학교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Sustainable SNU)’ 선언은 2008년 10월 학내에서 선포식을 갖고 발표되었다. 이후 5개 실천 부문에 대한 18개 실천 목표, 92개 실천 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으로 구체화된다(2009년 4월)(서울대학교, 2010).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표 9. 지속가능한 학교경영

항목	빈도	비율(%) [*]
대학의 지속가능한 경영계획이 명시된 공식 문서가 있음	4	21.1
대학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기구가 있음	4	21.1
대학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4	21.1
대학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0	0.0
기타	1	5.3
해당사항 없음	11	57.9

^{*} 복수 응답이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음.

전공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부분적이지만 학생과 직원(시설과), 지역사회(관악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서울대학교, 2010)은 ‘협력과 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문 참여자들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활동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재활용’, ‘녹지 공간 보존 및 생태계 보호’,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캠페인과 모니터링’의 세 가지였다(표 10). ‘로컬 푸드 또는 친환경 식재료 이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각각 11.1%와 5.6%로 낮게 나타났다.

사례 조사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교직원 학습 모임 가운데 하나인 ‘미래캠퍼스 시설발전연구회’는 시설과, 기술과, 기획실, 환경안전원,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AIEES) 직원들이 참여하여 친환경 캠퍼스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친환경 캠퍼스 구성을 위한 대학 건물의 세부 시설 적용 방안’이나 ‘학내 대기 전력 조사를 통한 전기 에너지 절약 방안 연구’같은 구체적인 학습의 성과물을 내기도 했다(서울대학교, 2010). 대학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는 시설과나 기술과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 10.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항목	빈도	비율(%) [*]
재생 에너지 사용	7	38.9
캠퍼스 내 차량 운행 제한	8	44.4
캠퍼스 내 자전거 이용 장려	6	33.3
대기오염 방지 시설	1	5.6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재활용	13	72.2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및 자원화	9	50.0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	5	27.8
녹지 공간 보존 및 생태계 보호	13	72.2
로컬 푸드 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2	11.1
친환경상품 구매	5	27.8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위한 캠페인과 모니터링	13	72.2
에너지 및 자원 감축 목표 설정	8	44.4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 공개	8	44.4
기타	2	11.1

^{*} 복수 응답이므로 비율의 합은 100%를 넘음.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학 구성원의 학습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연구 대상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을 교육 과정과 연구,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활동,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과 환경 관리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전체적 접근의 사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사례 가운데 하나인 국민대학교의 ‘녹색캠퍼스 만들기’운동은 대학 신문사의 활동과 학생 참여형 교양 수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 정책이 어우러져 녹색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8년여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교 전체적 접근은 대학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대학 운영의 전 영역에 걸쳐 실천하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연구 대상 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설문 조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강의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작고 응답자들이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심 있는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강의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환경교육 등 다른 교육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전문화된 대학원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 대상 대학들은 국내·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NGO, 정부, 학교, 기업 등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파트너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 캠퍼스’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대학들의 실천이 캠퍼스의 녹색화와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관리, 폐기물 재활용에 치우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사례 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과정과 연구,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활동, 지속가능한 학교 경영과 환경 관리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전체적 접근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파트너십과 환경 관리 과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1.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2010). **경기도그린 캠퍼스 국제포럼 자료집: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대학의 책임**,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명지대학교·British Council.
2. 남영숙, 지승현 (2010). 예비교사의 에코캠퍼스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 경험 분석, **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논문집**, 209-213.
3. 녹색연합 (2009). **기후변화시대, 대학의 대안: 저탄소 그린캠퍼스 만들기 가이드북**, 녹색연합.
4. 녹색캠퍼스 운영위원회 (2004). **녹색 캠퍼스를 꿈꾸며**, 이크.
5. 서울대학교 (2005). **친환경 캠퍼스 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
6. 서울대학교 (2010). **2010 Sustainable SNU: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백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과·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7. 신의순, 박진원, 박태윤, 성정희 (2009). **그린 캠퍼스 확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 환경부.
8. 울주군 (2010). **울주군 백서**.
9. 이선경, 김남수, 김찬국, 장미정, 주형선, 권혜선 (2010).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SD) 중간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 이재영, 원종빈, 정원영, 정수정, 조찬희 (2010).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1. 전영승 (2009). 그린캠퍼스 구축에 대한 사례연구-S대학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3(3), 141-173.
12. 지승현, 남영숙 (2010). 나눔과 순환 장터 체험 활동을 통해 살펴본 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사점, **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논문집**, 116-122.
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2006).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이행계획**, 지

- 속가능발전위원회.
14.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2009).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대학의 그린캠퍼스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15. Chalkley, B. (2006).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tinu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0(2), 235-236.
 16. Cotton, D. R. E., Warren, M. F., Maiboroda, O. & Bailey (2007). Sustainable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and pedagogy: A study of lecturers' beliefs and attitude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3(5), 579-597.
 17. Kim & Fortner (2005). A multi-scale Bayesian framework for the life cycle inventory of industrial materials: The case of transportation fuels, *Summary Report of the Education Component, Unpublished Research Report for the NSF Planning Grant*.
 18. Savan, B. & Bell, D. (2002) Curriculum development for community sustainability, in *Teaching Sustainability at Universities: Towards Curriculum Greening*, Filho (ed.), Peter Lang Publishing.
 19. SQW Limited (2006). *Specialist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HEPS) Programme*. HEFCE. <http://www.hefce.ac.uk/pubs/rereports/2006/>.
 20. Stephens, J. C., Hernandez, M. E., Roman, M., Graham, A. C. & Scholz, R. W. (2008) Higher education as a change agent for sustainability in different cultures and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9(3), 317-338.
 21. 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ESD in the UK in 2008: A Survey of Action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UK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2. ULSF (1999). *Association of University Leaders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Declaration*, 3(1).
 23. UNECE (2006). *Indicator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CE.
 24. UNESCO (2009a). *UN DESD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0).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 2005-2014) 맥락과 구조의 검토 (200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5. UNESCO (2009b). *UN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Operational Plan*, UNESCO.
- <기타 자료>
26. 부산대학교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 2010. 12.08.
 27. 에코캠퍼스 (2010). RCE 연구대학 공모전 보고서.
 28. 울주군 평생학습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 2010. 12.08.
 29. 한산신문, 2009.05.08, '대사성, 해마, 돈돈, 장터국밥 빈그릇 운동 선포'.
 30. 환경과 NGO 강의계획서 (2010).
 31. 환경과 NGO 담당 교수와의 전화 면담, 2010. 11.24.
 32. 환경과 NGO 학생 보고서: '성미산 마을'답사 보고서 (2010).

2011년 3월 7일 접수
2011년 3월 29일 심사완료
2011년 3월 30일 게재확정